

**2024년도 상반기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4.4.12.(금) 16:00
장소 : 중구의회 소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6시 02분 개회)

○위원장

심사위원장 000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잘 계셨는지 어제 뭐 선거 며칠 전에 선거 때라 모두 다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테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공무 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의정팀장으로부터 출장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 후 배부해드린 심사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심사 기준의 적합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한 후 맨 아래 최종 의결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체크하시고 서명을 하신 다음 가지고 계시면 직원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지난번과 같은 내용이니까 수고된 최종 의견 참반을 개소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00 간사님 나오셔서 국외 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에 우리 심사위원회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호주

의 의회 운영, 사회복지, 교육, 환경 분야, 관광자원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비교시찰 분석을 통해 우수 정책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장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5박 7일간이며 출장국은 호주입니다.

출장자는 의원님은 윤판호, 조미정, 손주하, 양은미 의원 등 4명이고, 직원은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며, 연수 경비는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였는데 상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페이지 출장 일정입니다. 출장 상세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차에 다민족 학생 간의 소통 활성화 선진 모델인 시드니 대학교와 도시재생의 선진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바람 가루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여 새로운 문화 체험지로 부상하는 룩스 거리 등 시찰을 통해 우리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 친화적인 관광산업 개발 및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계획서 3페이지 3일차에는 시드니 시의회를 방문하여 현지 지방의회 의원 간의 간담회 및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4일 차에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육 선진국의 공교육 실태를 비교하고 우리 공교육에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울릉공을 방문하여 관광자원 관리 및 운영의 실태를 비교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에는 우리 중구가 노인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가는 추세임에 따라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복지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자연공원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을 위해 호주의 동부 해안 지역을 시찰하고, 관내 문화 특화시설 개발을 위해 시드니 올림픽공원을 방문하여 문화관광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차에는 복합 복합상업지구인 달링하버 지역을 방문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 등의 결합으로 호주의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활동에 중요한 부분이 된 크루즈 산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구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의 밑거름을 만들고 침체되어 가는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서 4페이지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장 경비 산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자 환율 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상 4등급인 호주의 국가등급을 적용하여 부의장님은 1인당 401만 7990원이며 일반 의원님들은 1인당 337만 6,110원으로 전체 산출 경비는 1,414만 6천여 원입니다. 직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중부 외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상 4등급인 호주의 국가등급을 적용하여 1인당 337만 6,110원이며 전체 산출 여비는 1,012만8천여 원입니다.

본 금액은 실제 여비 지급일의 당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출장을 통하여 호주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 및 문화예술 행정사무와 의회 운영,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 발전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출장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들 다 위원님들이 잘 해보시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거 뭐 우리가 어떤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요식 행위를 거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한테 말씀을 해보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 넘어가 어떤 뭐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의견 있으시면 간사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000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존에 주셨던 이메일에는 이 직원 한 분이 빠

져 있었는데 갑자기 가시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간사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일반 직원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팀장급 한 분하고 직원들 상임위원회 담당하고 정책지원관에서 이렇게 3명으로 가자고 지금 구성을 요청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 3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000

그리고 제가 호주에 있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바랑가루 같은 경우에는 한강처럼 그렇게 경관 산책로가 되어 있어서 남성고도 제한 완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에는 여긴 남산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14일 3일 차에 블루마운틴 가시잖아요. 보통 지금 시드니 동물원이랑 같이 블루마운틴이랑 같이 묶어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블루마운틴에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산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 모델 비교 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거를 비교 시찰이 가능할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특히나 원주민이라고 해서 에보리진이 원래 살던 곳에 여기 원래 다른 백인들이 가서 살게 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루마운틴의 여기 남산 한옥마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군의회에 보니까 5일차 때 보면 복지시설 하셔서 시드니 양로원 가셨던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조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편은 호주랑 뉴질랜드랑 같이 묶어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비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 시드니만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2일 차 3일차 4일차 이때 보면 이 비용에 비해서 환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과 다르게는 너무 루즈한 것 같아요. 한 시드니만 가시기에는 조금 일정이 너무 루즈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000

네.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제 시드니의 좋은 날씨 뭐 이런 거 거기는 우리나라랑 날씨가 반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저는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런 일정으로 잡지 않겠어요. 왜? 왜냐하면 이때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에 '비비드 시즌'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축제는 얼마나들 가고 싶어 하고. 왜 시드니가 이때에 겨울의 아주 침침한 때에 시드니를 밝게 하려고 시작된게. 주민들이요. 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천장에다가 이렇게 랩을 씌웠어요. 그 조명으로 그걸 시작해서 거기 박물관 동물원까지 모든 게 빛의 축제입니다. 근데 그것 그 빛의 축제가 왜 의미를 두냐면은 거의 10년 20년 만에 세계적인 축제가 돼서 지금은 조금 더 기간이 더 됐지만 지금은 200만에서 300만을 시드니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구도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특별히 변하지 않은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중구도 문화벨트 같은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세계적인 명소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it 기술로 그런 그쪽을 능가할 수 있는 입이 딱 벌어져요. 가보면 그런 지금 기간이 딱 맞거든요. 5월 24일에서 6월 15일까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숙소 잡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떡하면 저렇게 빨리 그 시를 작은 아이템으로 세계적인 빛의 축제가 되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한 가지 좋은 점은 모든 사람이 어디 가면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나는 여기가 이 축제가 더 어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방문객하고 그 누구라도 어디서나 다 토론을 하면서 이 축제를 세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성공했던 이유는 이 it 전문가 이 빛의 모든 디자이너이 모든 세계에서 최고 사람들만 모셔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의 서울의 중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런 걸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요. 그냥 어디나 다 여행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맞추는데 이게 안 맞춰지는 것도 우리 0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뭔가 좀 발전적이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사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일단 반영해서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000

기간이 기가 막히게 맞으니까.

○위원장

여행 일정이라든가 계획 방문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누가?

○간사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여행사

○위원.000

그런 거 뭐 알아요? 여행 다니는 사람 아니고서야 모르지.

○간사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이제 여행사나 이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단가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전문 기관인 무슨 한국산업기술원 같이 하면 굉장히 비싸지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조금 저렴해지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곳을 갈 수 있어서 일단 그렇게

○위원장

해놓은 거야. 이렇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안을 하나 내놓게요.

지금은 이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에 또 심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심의위원들을 한번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좀 취합을 해서 여행사한테 제공을 하면 어떻겠는지

○간사

네 그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네.

○위원장

어때요? 좋은 안들이 있으면 그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위원.000

왜 아무래도 낫겠죠.

○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사에도 해라 아주 전문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거기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

○간사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후반기 지금은 복지건설위원회가 가는 거고요. 행정보건위원회가 아마 하반기에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계획 수립하기 전에 먼저 일단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을 추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위원장

우리가 기왕 심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와서 그냥 보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겠습니다.

○위원.000

이렇게 와서 잠시 심사만 하고 가면 되지만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갔다 와서 뭐 어디 신문이라든지 우리 중구에 뭐 여러 가지 뭐 뭐 칼럼이나 뭐라도 쓰더라도 어 하고 아 소리가 나오는 야 이게 그냥 간 게 아니라 가서 벤치마킹을 잘하고 왔구나 뭐 이런 무슨 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하면은 우리도

○위원장

그래 그래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000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할 게 있고 중구 자체에서 할 게 있는데 중구는 문화행사를 하든 뭐하든 간에 5천만 원 이내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 시드니 방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시 차원에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리기 때문에 기초 거기까지 아마 핸들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면 하여튼 잘 정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부의장은 보니까 4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일반의원은 330만 원 근데 같이 행동하는데 부의장은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간사

그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일반 의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특실로 가고 그래요.

특실은 아니지만 여비의 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비 산정일 뿐이지 이제 어쨌든 사실은 이 금액에서 개인 돈을 추가해서 가시거든요.

○위원.000

같이 가셔야지 돈을 누구 의장이라고 해서 같은 의원끼리 가는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의장 부의장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왔다고는... 이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간사

근데 이제 저희가 최대치로 일단 여비 규정상에 이제 그거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000

그리고 지금 상임위가 몇 개죠? 지금?

○간사

저희가 3개인데 이제 의회 운영위 빼고는 이제 2개입니다. 행정하고 이제 복지 건설.

○위원.000

행정하고 복지하고 두 군데인데 왜 그 같이 안 가고 4명 5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사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이제 위원회별로 좀 가자고 하셔가지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다 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진행...

○위원.000

왜냐하면 국회에서도요. 여야를 떠나서 상임위별로 간다든가 그거는 보통 가면 막 20~30명씩 가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가야지 상위별로 갈 필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눠서 가면은.

○간사

그렇죠 이제 적어지면 경비 부분은 조금 더 많아지고

○위원.000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한꺼번에 가야지. 또 4명 가시고 또 5명 가시고 5명 갈 때 또 심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사

그렇죠.

○위원.000

왜냐하면 이 기초의회는 목표가 같아야 해요. 가는 시점이 보면 비슷하게 다 볼 거 아니에요. 같이 와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라든가 서로 간에 의견도 같이 나누고 또 이 간 목적이 또 의원들 간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는데, 4명 5명이 요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웬만하면 같이 가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꼭 4명 5명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같은 목표로 보고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서로 간에 의논하면서 이것은 이렇다는 걸 서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고 저거 하고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의장이라고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되돌릴 수는 없죠. 어 일단은 같이 가야지. 그 몇 명 된다고 이거 뭐 뭐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 자체가 또 왜냐하면 내가 의회에 지금 현재 보니까 편갈라져서 의원들은 서로 간에 의원들을 서로 존중하고 의회 내에서는 서로 화합을 하고 해야 하는데 니편 내편 나눠가지고 보니까 간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마는 그걸 참고하셔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그러는데 왜 꼭 나눠서 가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장

지금 우리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에서 위에 형편상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좀 더 보고를 해 보세요.

해보시고 의원들에게 '두 명 가라, 세 명 가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산 고도, 남산 고도 한국, 뭐야. 한옥마을, 시드니, 의원 전원, 예산.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세 나라에 갈 걸 하나 줄이고 그게 조금 효율적으로 가는 의원님들 생각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 때 그거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한번 건의는 해보세요.

○간사

의원님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음 이제 있을 때는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회의 때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임무 문제로 시정이 될 수 있느냐 안 없느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른 의견들 많으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줄입시다.

○위원.000

여기 하나는 해봐야 돼. 다른 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유예 지방의회 의 지급 기준 이런 거는 다 돼 있어서 시도의회하고 의장 자치

구는 의장부의장급은 우리가 영어로 정의장이었기 때문에 짚어만 해서 알게 된 동기가 됐을 뿐이고 다른 거는 우리가 출장 심사 기준 위원별 심사표 있죠.

그 란에 유일하게 하나 여기서 체크를 안 해봤는데 끝에서 두 번 세 번째 출장 경비의 적정성 2항에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이 난에는 여기서도 보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 있어요?

○간사

이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000

빠졌다고.

○간사

타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출전 경비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당성 여부는 예로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000

더구나 그게 글씨 조금 이상해서 또 돈 관계고 그래서 예민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위원.000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않기 때문에. 예 아니오가.

○위원.000

이거는 아니네.

○위원.000

게다가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질문이기 때문에.

○간사

아니옵니다.

○위원.000

우리는 상관이 없죠.

○간사

그래도 이제 아니오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예 받지를.

○위원.000

그러니까 지원금은.

○위원.000

안 돼요. 아니요. 그러면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되잖아요. 이 해당 안 되니까 해당 없음. 해당 없음으로.

○간사

네네네 그게 맞겠네요. 네 네네네.

○위원장.

다른 의견 의견이 없으신 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씩 이해들 하시고요. 그러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고해드린 심사 기준을 참고하시어 본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각 항목별로 확인하시고 최종적인 의견을 찬성 반대란에 체크 및 서명하신 후 가지고 계시면 직원이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지휘권을 수거해서 끝나면 위원장 선으로 좀 가져오세요.

뭐 이거 몇 번 해보셨지만 안해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수고들 하세요. 다 수고했어요.

○위원.000

지금 우리 이게 몇 대죠? 몇 대 의회가 지금 9대 전반기 모든 게 이렇게 여행 출장 가는 것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의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비정상 이런 건데 이게 이런 것도 갈 걸

○위원장

투표를 종료하고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감사와 사무과 직원이 하고 검수는 부위원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저 됐어요.

○부위원장.

그냥 앉으셨어요 찬성 셋 반대. 총 7개인데 총.

○위원.000

아 저.

○부위원장.

7분이 총 7분 중 의견 개진하셔서 반대 1명 그리고 6명 찬성하셔서 찬성 결의됐습니다.

○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개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 국외 출장은 찬성 6표 반대 1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열띤 토론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지금 오늘 위원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담담이 계시니까 반영이 되든 안되든 간에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고 정 불가피하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회의를 왜 하겠어요?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좋은 결과와 방법을 찾자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 의원들이 가면은 기왕 돈을 들어서 가면 어떤 효율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잘 갔다 왔구나 그런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위원들이 결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건의를 해.

○간사

최대한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일정 조정을 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